

갤러리 색즉시공



그림·글=희상 스님

생명

움직임을 봅니다  
나무도 움직이고  
지붕위에 새들도 움직이고  
빗방울도 움직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움직입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中道’에서 眞如를 만나다

Buddha in Comic & Ani

◎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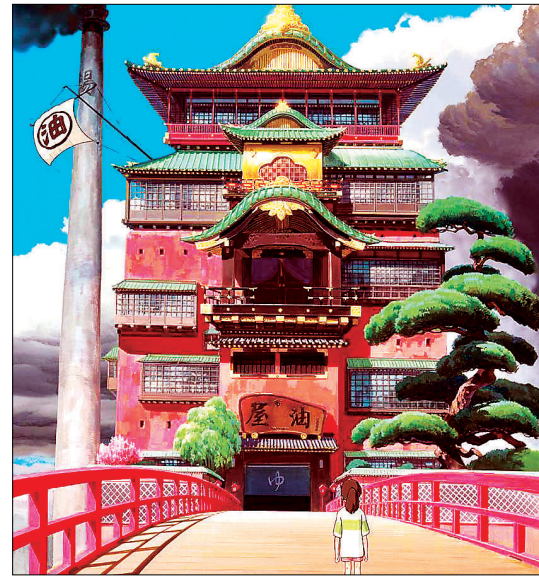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포스터

“처음 받은 꽃이 이별의 꽃이라니, 싫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 있는 소녀가 울듯이 이야기한다. 앞자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괜찮아”를 연발한다. 이내 가족은 자신들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지만 이미 길을 지나친 상황. 아버지는 호기롭게 도로 사이에 난 산길을 올랐지만, 그 끝에는 돌상과 빨간문이 있다.  
잠시 은퇴를 선언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복귀작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하 센과 치히로)'의

이야기는 치히로의 가족이 빨간 문을 지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센과 치히로'는 믿고 볼 수 있는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어췌지 않을 정도의 명작이다.  
낯선 세계에서 부모는 아무도 없는 가게의 음식을 먹고 돼지로 변해버리고 치히로만 홀로 남겨 된다. 치히로를 구해준 것은 미소년 하루. 하루는 길옆의 열매를 먹게 해 치히로에게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무대는 마녀 유바바가 운영하는 '유옥(油屋)'이라는 온천장으로 넘어간다. 이곳 또한 화려한 곳이다. 치히로(千尋)는 '일하지 않으면 유바바가 돼지로 만들어버린다'는 이 '유옥'에서 유바바에게 '센(千)'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일을 하게 된다. 치히로이자 센은 '유옥'에서 부모님을 구하고, 이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센과 치히로'의 공간적 주 무대는 바로 '유옥'이라는 곳이다. '유옥'은 말 그대로 '기름 집' 즉, 불타고 있는 집이다. 화택(火宅)은 <법화경(法華經)>에 쓰인 유명한 비유이다. 화택(火宅)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우비고뇌(憂悲苦惱)로 점철된 이 세상을 뜻한다. 이 세상을 태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불길은 지배욕이나 소유욕과 같은 '욕망' 혹은 '집착'이다.  
'유옥'은 일본의 만신들이 지치고 힘든 몸을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유바바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지불한다. 노동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유옥'은 이미 '신들이 쉬어가는 곳'이 아닌 단순한 '영업장'으로 비춰진다.

이곳에서 보여지는 군상들도 대부분은 물욕과 식욕을 좇는 범부들이다. 도마뱀 꼬기나 사금을 보며 모여드는 종업원·항상 돈과 보물을 세고 있는 유바바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화택의 이미지를 가진 '유옥'에 물의 이미지를 결합해 한번 더 비틀기를 시도한다. 그의 작품에서 불은 '파괴'를, 물은 '정화'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거신병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의 7일간'이나 '모노노케 히메'의 생명의 상징인 사슴신이 쉬어가는 샘은 이런 역할의 이미지를 대변해준다.  
유바바가 불의 이미지라면 치히로(센)는 물의 이미지다. 치히로는 목욕탕의 때를 벗기고 약수를 길어온다. 치히로는 항상 물과 함께 한다. 오물신을 강아지로 정화시킨 것도 치히로였다. 본래 강이 신이었던 하루와의 첫 기억도 치히로가 '코하쿠 강'에 빠진 것이다.(하루는 치히로가 자신을 기억해냄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다)  
작품에서 타닝 포인트는 치히로가 기차를 타면서부터다. 갈 수만 있고 되돌아올 수 없는 기차. 늪의 경계를 돌아 '늪의 바닥' 역을 지나 사라지는 기차의 이름은 '중도(中道)'이다. 그 기차를 타고 치히로는 '늪의 바닥'으로 향한다.  
'중도'의 기차길에는 끊임없이 수행선의 경계만이 비춰진다. '센과 치히로'의 모든 것은 경계에 걸쳐 있다. 물과 불·치안과 피안·육망과 정화·살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는 목가적이고 동화적인 이미지의 '중도' 기차의 여정을 통해 완전히 하나가



'센과 치히로'의 한 장면을. '센과 치히로'는 유옥이라는 화택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녀의 고군분투 모험기이다.

돼 진화화합한다.  
이렇듯 미야자키 하야오는 <센과 치히로>에서 생성시킨 이미지들은 이 같은 경계를 흔들면서 미묘한 자장을 형성시킨다. 이런 자장은 우리에게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사유케 해주는 단초로 작용한다.  
용수는 <중론>에서 "무릇 연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성이라고 설한다. 그것은 임의로 시설(施設)된 것이며, 그것은 '중도' 그 자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존재는 '있고, 없고'의 양변의 존재를 떠나 있다는 말이다.  
치히로와 센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였다. 모든 존재의 실재(實在)는 다만 연에 의한 잠깐의 이름에 불과하다. '센과 치히로'의 세계는 모두 치히로와의 관계에서 이뤄진다. 이렇게 치히로가 만나고 경험하는 인연들이 빚어내는 하모니가 <센과 치히로>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도 인상적이다. 마치 선문답과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하루와 함께 돌아온 치히로를 맞는 것은 유바바와 12마리의 돼지들이다. 유바바는 치히로에게 "여기서 부모를 찾아봐라"라고 소리친다. 찬찬히 둘러본 치히로는 "없어요"라고 말한다. 물론 정답이었다.  
월호스님은 이 부분을 자신의 책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에서 "무(無)아발로 자신의 본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이라하며 "이것은 무심의 경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정작 센과 치히로는 행방불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돌문을 나와 현실로 돌아간다. 치히로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이 행방불명돼 있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자꾸 반문해 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옥’ 벗어나기 위한 소녀의 모험 신화와 동화적 감수성 만남 ‘늪길’ 세파에 이기고 싶다면 자신을 알라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X 세로 6cm X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이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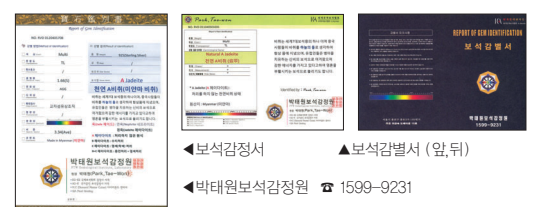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화집의 기도
-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 4. 밤나 귀우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할 기쁨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명의 기도
- 9. 정안 염불
- 10. 마음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빈손으로 왔다
- 13. 사람을 쓸 때는
-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다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바르며
- 19. 불의 귀신을 쫓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점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진언 1
- 22. 광명진언 2
- 23. 개경계
- 24. 지장공덕분
- 25. 예불문
- 26. 이산 해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찬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경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정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발우 환희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서원
- 43. 신화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길로법을 전하지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정도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약장
- 53. 관세음보살 2약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명분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물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향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